

최근의 유가동향과 특징

10월의 OPEC평균유가는 33.15달러로서 9월보다 2.03달러 올랐다. 국제유가는 10월 한달동안 11달러 이상의 큰 변동폭을 가지고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였으나 11월 들어서는 다소 하락한 수준에서 그 변동폭이 좁아지고 있다.

최고 37.04달러(9/28)까지 올랐던 Dubai원유 현물가격은 10월 12일 이후 열흘간 10달러나 폭락하여 8월 16일 이래 최저치인 24.55달러(10/22)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후 유가는 다시 상승하여 11월 첫 주 현재 27~30달러(Dubai) 수준을 유지중이다.

중동사태 발생 이후 경질유와 중질유간의 가격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공급중단된 이라크·쿠웨이트 원유는 輕質인 반면 공급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증산된 사우디아라비아·UAE·베네수엘라 원유는 重質이므로 輕質原油의 수급이 더욱 팽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75만b/d의 쿠웨이트 정유공장이 가동중단됨에 따라 소비국의 정제능력도 제약되고 경질 석유제품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경질원유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WTI유가는 Brent보다 1.5~2달러 정도 높은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8월 이후는 그 격차가 없어지고 오히려 Brent 유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두 유종 모두 시장지표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실물거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Brent원유는 실물인도로도 공급물량 확보 효과를 거둘수 있으나 WTI油는 소량이 그것도 미국내에서만 실물인도되는 실정이다.

重質油-輕質油間의 절대적 가격격차는 크게 벌어졌지만 유가변동은 유종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도 최근 유가의 특징이다.

10월 하순부터 11월초까지의 유가추이를 살펴볼 때, 심리적 유가상승요인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급구조적으로 본 4/4분기 OPEC 평균유가는 25달러(에너지동향, 1990. 10. 8)로 생각되는데, 이 가격 수준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크게 고조되었던 10월 22일 수준과 부합된다.

9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35달러내외였던 OPEC평균유가가 11월초 현재는 30달러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월 26일 이후 11월초에 걸쳐서는 미국의 對이라크 무력행사 경고가 더욱 빈발하고, 이에 대한 이라크의 자세 또한 강경 일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포함 내지 하락세를 나타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東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석유시장은 심리적 면역이 강해지고 미국·이라크측의 톱戰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26일 이후 11월 6일까지의 유가 포함내지 하락현상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11월 7일은 하루만에 유가가 2.6달러 상승하였는데 이는 중동사태의 긴장고조(미군 10만명 추가파병발표)와 이란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지진(리히터 진도 7.0) 보도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의 석유시황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유전사고·혹한 등 공급장애가 추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민감하다. 그렇지만 中東에서의 실질적 무력충돌이 발발되지 않는 한 9~10월과 같은 심리적 유가 폭등세는 재연되지 않을 것 같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최근의 현물유가 추이

(단위 : \$ / B)

	9월	10월	10/12	10/19	10/22	10/26	11/2	11/5	11/6	11/7
WTI	33.87	36.03	39.38	33.79	28.50	33.01	33.95	32.11	32.78	35.45
Brent	35.10	36.16	39.39	32.32	27.60	32.78	34.71	33.10	33.40	36.00
Dubai	30.44	31.51	34.58	28.77	24.55	29.18	29.44	27.32	27.75	30.35
OPEC평균	31.12	33.15	36.06	34.61		28.68	31.96			